

羅州鄭氏宗報

제23호 / 2016. 4. 9.



羅州鄭氏大宗會

宗 訓

崇祖 하 여 宗威宣揚
和合 하 여 一致團結
奉仕 하 여 宗會發展

宗 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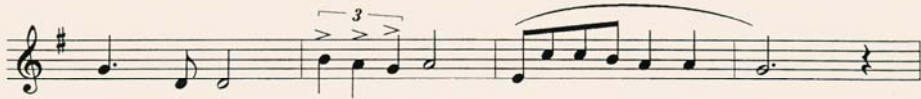
羅州鄭氏 宗歌

작사 정육연
작곡 최상렬

Moderato



1. 금 성 산 서 기 어린 금-안 동-마 을
2. 정 가 신 중 시 조님 숨-결 깃-든 곳
3. 호 남 별 바 라 보는 오-정 들-- 은



조 상 님 대-대 로 살-아-온 명 촌
선 조 님 충 효 정 신 찬-란-한 유 산
선 산 에 꽃 피 우 는 후-손-이 되 어



오 랜 전-동 빛 난 문-중 화 목 한 중-가- 들
쌍 계 정-- 모 두 모-여 우리 뜻 펼-- 처
입 란 충-신 선 선 현 들-은 문 중 의 빛-이- 고



금 지 로- 함께 문 친 한 조 상 한 자 손
참 되 고- 슬 기 록 게 같 고- 닭 으 세
중 친 들 의 승 조 정 신 거 록-하 도 다.



자 손 만 대 영 원 토 록 이 어-나-가 는



우 리 는 전 통 있 는 나 주-정 자 손

中始祖 文靖公 雪齋 鄭可臣 先生 墓所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가곡리 정능동(京畿道 漣川郡 旺澄面 基谷里 鄭陵洞)

경기도 장단군(지금은 연천군) 왕징면 가곡리 정능동에는 중시조 문정공 할아버지의 사패지 賜牌地가 있으며 임야(30정보), 논(1820평), 밭(1141평), 대지(168평)이 있다.

1298년 6월 4일 문정공 할아버지를 이곳에 예장禮葬한 이후 광복이 되기까지 647년 동안 묘직墓直이를 두고, 전국 경향 각지에서 후손들이 모여 세향歲享을 모시며 친목을 도모하고 조상대대로 묘소를 관리해 왔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되고,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묘소가 불행하게도 남쪽 군사분계선 안에 들어가게 되어 이때부터 묘소 참배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반세기가 흘렀다.

1924년 7월에 개비改碑하였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 출신 26세손 성진 대령이 묘를 찾아 1999년 11월 24일 나주정씨 대종회와 육군 제8567부대가 자매결연을 맺은 후 11월 중에 전국 경향 각지의 종친들이 모여 망제望祭를 모시고 있다.

황도 사향시 皇都 思鄉詩

雪齋 鄭可臣

海東南有錦城山 (해동남유금성산)

山下吾廬草數間 (산하오려초수간)

巷柳園桃親手種 (항류원도친수종)

春來應待主人還 (춘래응대주인환)

家在三千里外地 (가재삼천리외지)

身遊十二帝王城 (신유십이제왕성)

玉簫吹斷江南夢 (옥소취단강남몽)

窓外無心月五更 (창외무심월오경)

고국 남쪽에 금성산이 있고
그 산 아래 내 살던 초가삼간 있네
골목과 뒤편에 버드나무와 복숭아를 친히 심었으니
봄이 오면 응당 주인을 기다리겠지?

집은 삼천리 밖에 있고
몸은 십이제왕성에 노니는구나
옥통소 부는 소리에 강남꿈을 깨고 나니
창밖의 무심한 달은 새벽녘이어라

쌍계정 雙溪亭



所在地：全羅南道 羅州市 老安面 金鞍里

문정공 설재 정가신文靖公雪齋鄭可臣 선생께서 창건創建하였으며, 문숙공 김주정文肅公金周鼎 선생과 문현공 윤보文顯公尹瑠 선생이 정좌강론鼎坐講論하던 곳으로 세칭世稱 삼현당三賢堂이라고도 하였다 한다.

여러 번에 걸친 병화兵火로 문적文籍이 타 없어지고 1601년(선조宣祖29)에 중수重修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존現存하고 있는 문적文籍이나 자료資料도 1601년 이후 것이 전傳해지고 있다.

한석봉韓錫奉 선생이 정자亭子 현판懸板을 썼으며 설재공雪齋公의 사향시思鄉詩가 걸려 있다.

1973년 4월 4일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全羅南道有形文化財 제34호로 지정指定 되었다.

나주정씨 생활훈 羅州鄭氏生活訓

1. 勿忘天地恩 물망천지은 천지와 자연의 은혜를 잊지 말고
2. 勿忘國家恩 물망국가은 국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3. 勿忘先祖恩 물망선조은 조상의 은혜를 잊지 말고
4. 勿忘父母恩 물망부모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5. 勿忘師父恩 물망사부은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말고
6. 勿忘社會恩 물망사회은 인류와 사회의 은혜를 잊지 말자.
7. 感謝報恩 감사보은 매사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한다.
8. 家傳傳統 가전전통 조상의 빛난 전통 계승하여 자손 대대로 이어간다.
9. 愛族和合 애족화합 종친은 한 핏줄, 한 자손 서로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되어 명문가가 된다.
10. 子女教育 자녀교육 자녀교육은 가문과 국가 백년지대계이다.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한다.

대동항렬표 大同行列表

世代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大同 行列	國 ○	浩 ○	木 ○	會 ○	遇 ○	勉 ○	炳光 ○	衍均 ○	茂鍾 ○	範洙 ○	廣相 ○	奇烈 ○	喜在 ○	揆鎬 ○	永 ○	植 ○	大 ○	奎

종사 십계명 宗事十誡命

- 一. 위선사업爲先事業은 조상祖上의 마음을 헤아려 자손子孫의 화합和合에 위배違背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二. 종사의결사항宗事議決事項은 자손만대子孫萬代에 시비是非꺼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三. 종사宗事는 승조보본崇祖報本과 화친돈목和親敦睦의大本大元을 근간根幹으로 하여야 한다.
- 四. 종사宗事는 설득說得과 이해理解로써 합의合意를 이루어야 한다.
- 五. 종사宗事에는 의견意見이 상이相異하다고 하여 적대시敵對視하여서는 아니 된다.
- 六. 종사宗事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서로 다툼 것 같으면 일을 하지 않고 화합和合하여 지내느니만 못하다.
- 七. 종사宗事는 사심私心이 있을 수 없고 종사宗事に 임任하는 자者는 문중門中에 봉사奉仕한다는 소명의식召命意識을 가져야 한다.
- 八. 명문名門은 명문名門다워야 한다. 타씨족他氏族이 본받을 수 있는 종사운영宗事運營이 되어야 한다.
- 九. 양반兩班은 양반兩班다워야 한다. 예의범절禮儀凡節, 언행言行이 타他의 모범模範이 되어야 한다.
- 十. 열熱과 성誠으로 혈족血族의 본분本分을 지켜나가야 한다. 수상手上, 수하手下의 질서秩序가 엄존嚴存하고 상경上敬, 하후下厚의 예절禮節이 정립正立되어 타他의 표상表象이 되어야 한다.